

남월남(베트남공화국) 패망의 교훈



李大鎔

(전)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공사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명예회장

1. 서언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역사·문화가 일관성 쌍둥이같이 닮은 상태다. 제2차세계대전 후,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에는 공산독재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북베트남공산군의 남침 총공세에 의해 남베트남은 패망했다. 이때에 미국은 남베트남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했다. 그 당시 남베트남은 국론이 사분오열되어 밑 빠진 독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외면한 것이다. 즉 미국은 밑 빠진 독에는 더 이상 물을 붓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베트남 패망 직전과 아주 비슷한 혼란 상태에 놓여있다. 우리 국민들은 남베트남 패망의 교훈을 새삼 상세히 살펴보고 절대로 그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국민들이 이성理性을 가지고 대처해야할 중대한 시점에서 있는 것이다.

2. 베트남(월남)과 우리나라 역사·문화 유사성

중국대륙의 진시황제秦始皇帝가 기원전 214년에 월남을 정복했다. 기원전 111년에는 한나라 무제武帝가 이루어 크(월남)왕국을 재정복했다는 역사기록이 있다. 월남이 국가체제를 이룬 역사적 시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서기 939년에 월남의 고편이 독립군을 편성, 또다시 중국세

력을 몰아내고 독립왕조를 수립, 중국이 팽창하면 조공朝貢을 바치고, 중국이 혼란에 빠지면 자주독립을 유지하면서 현대까지 약 천년을 이어 내려온 것도 우리와 같다.

고대로부터 두 나라는 한문漢文을 사용했으며 이두吏讀를 만들어 사용한 것도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한글을 창제했고, 월남은 자기나라 글을 창제하지 못했다. 지금 월남문자는 프랑스신부들이 월남에 와서, 한자漢字가 어려워 배우지 않고, 카톨릭 신자들의 명부 작성 시 프랑스 문자로 표기하다가, 표기할 수 없는 발음은 글자 밑에 점을 찍던가 글자 위에다 특수한 표시를 하여 사용하다가 이것이 점점 개량되어, 월남어를 완전하게 표시할 수 있게 되자, 이것이 현재 사용하는 문자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과거제도科擧制度로 관료를 선발하는 문치주의文治主義나라는 제도의 본고장인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월남이 대표적 표본이다. 중국의 주변에서 민족이 소멸당하지 않고 생존한 약소국가라는 것도 같다. 중국을 대국大國으로 모시는 지배하에 있다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한 경험도 같다.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남북으로 허리가 잘려 분단된 사실, 그리고 북에는 공산정권, 남에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된 것도 비슷하다. 남측을 북측이 공격하여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을 벌인 것도 동일한 역사의 패턴으로 보인다.

면적이 약 33만과 22만 평방킬로미터의 그리 큰 나라들은 아니지만, 국내의 지역감정이 드센 것, 식민지 잔재 청산 문제로 인한 정통성 논쟁, 각 정치세력간의 끝없는 분파 분派와 이합집산, 정쟁政爭을 벌이는 것까지도 어찌 그리 닮은 꼴 인지 모른다. 두 나라는 독자적인 힘으로 자주국방을 못해 미군美軍의 도움을 받았고 결국에는 미군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파병돼 공산군과 싸운 것까지 비슷하다.

3. 월남의 남북 분단

호치민(胡志明)은 1930년 2월3일 중국에서 월남공산당을 창당했다. 그는 1944년 12월22일 국경선을 넘어 북월 산악지대에 있는 까오방 읍으로 들어와서 보웬잡(武元甲)을



월남 수로에서 작전 수행중인 한국군

지휘하여 27명의 월남공산군 부대를 편성했다. 이 부대는 8.15해방 때까지 1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자 연합국 측은 월남을 남북으로 구분하여 북위 16도선 이북은 중국의 국부군이, 이남은 영국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두 나라 군대는 9월이 돼서야 하노이와 사이공에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시작하여 그 달에 끝냈다. 한편 호치민은 1945년 8월17일 자기 휘하의 게릴라부대 이름을 ‘월남해방군’으로 바꾸고, 보웬잡이 지휘하는 부대의 2개 중대를

선발대로 무주공처無主空處인 하노이에 재빠르게 진입시키고, 곧 이어서 자기도 주력을 이끌고 하노이로 들어갔다. 그리고 월남독립동맹임시위원회(약칭 월맹)을 만들어 하노이 행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1945년 9월2일에는 ‘월남민주공화국’을 건국했다고 독립선언을 했다. 갑작스러운 공산정권의 출현에 대해서 월남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익인사들은 소리 높여 반대하고 나섰다. 고딘디엠(吳廷琰), 찰반뒤엔(陳文典), 환각수, 황광탄 등 많은 인사들이 반대하여 호치민과 대립했다. 이때부터 월남정계는 좌, 우익으로 갈라져서 정치적 이념투쟁이 격렬하게 됐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끝낸 영국군과 중국 국부군은 10월부터 월남에 진주해 온 프랑스군에게 1946년 봄까지 월남 지배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모두 철수했다. 프랑스군이 월남에 진주하기 시작하자, 호치민은 하노이에서 철수하여 중·월 국경지대로 철수하여 군대 병력을 늘리면서 프랑스 원정군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1946년 12월19일 전면전에 돌입했다. 25만명의 프랑스 원정군은 개전 초기에는 승승장구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고전을 면치 못했다. 프랑스 식민지보다는 자주독립을 원하는 월남인

들의 정서는 호치민공산군을 돕게 되었다. 북월의 농촌과 도시의 동洞 별로 게릴라 지하조직이 나날이 늘어나고 프랑스 원정군을 야간에 뒤에서 습격했다.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이 끝나자, 중공군은 호치민 공산군에 대한 대대적 무기 및 탄약 지원에 나섰으며, 공산군은 프랑스군에 맞먹는 장비를 갖춘 여러 개의 보병사단을 편성했다. 1954년 5월 전략 요충지인 디엔비엔푸가 공산군에 의해 함락되고 프랑스군 전원은 포로가 됐다. 5월20일 프랑스정부는 호치민 측과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여 북위 17도선 이남으로 철수하기로 하고 이남에 수립되

어 있는 바오다이(保大)황제 정권과 호치민정권이 협의하여 1956년 7월20일 남북총선거로 월남의 장래를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일단 17도선 이남으로 철수한 프랑스군은 1955년에는 월남 전 영토에서 완전 철수하여 본토로 돌아갔다. 프랑스는 1884년부터 70여 년간 지배하던 월남에서 손을 떼고 퇴장한 것이다. 호치민은 하노이로 재입성했다. 이리하여 프랑스는 월남에서 사라지고 북위 17도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북에는 호치민의 공산정권이, 남에는 자유민주주의 바오다이황제 정권으로 분단 상태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남북총선거를 기다리게 되었다.

4. 남월 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태평 안정기 후 군사혁명 후의 정세

바오다이황제 정부는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무능했다. 치안상태는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황제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미국 신학교에 가있는 청렴결백한 52세의 독실한 카톨릭신자인 고딘디엠을 원했다. 미국에서 1954년 돌아 온 고딘디엠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어 1955년 10월26일 남월 민선 대통령에 취임하여 베트남(월남)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고딘디엠은 북월의 호치민 측과 1956년7월20일로 예정된 남북총선거 실시를 거론했으나, 자유선거 보장 문제로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하고 총선거는 좌절되었다. 고딘디엠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뿌리 깊게 내려온 뇌물, 도박, 아편, 매춘의 4대악을 뿌리 뽑고 청렴결백 정신으로 대담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경제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집권한 지 4년 만에 쌀 생산을 연 180만 톤에서 300만 톤으로 증산하고, 고무농원을 325개에서 4,775개로 늘리는 등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편, 군사력을 정예화 시켜 북월공산군의 남침을 모두 격파하여 철수케 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 대통령이 대략 6, 7년 이상 장기집권을 하면 제왕적 권력으로 흐르기 쉽다.

고딘디엠이 재선 후 2년쯤 지난 1960년 경부터 대통령의 동생, 제수 등의 권력행사가 국민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딘디엠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하여 1963년 10월26일 장기집권에 들어가자, 그로부터 6일 후 고딘디엠에 반발하는 군사쿠데타가 발생, 고딘디엠은 사살되고 남월의 제1공화정이 무너졌다. 그리고 정반민(楊文明) 장군의 임시 군정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군의 분열로, 다시 반대파가 주도하는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1964년 정반민 장군은 실각하고, 웬칸(阮慶) 장군이 군사혁명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이때부터 군은 사분오열되어 1964년 10월까지 군사쿠데타는 5회나 일어났다. 1964년 군의 총병력 수는 46만3천명의 현역 정규군이었는데, 이 중 약 15만 명이 탈영하여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군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훗날 11만 명이 복귀했으나 나머지는 영원히 탈영을 했다. 이 혼란기를 이용하여 민간인들의 반정부 데모는 기승을 부리고 있었으며, 1964년 11월3일 군부는 물러나고 환각수를 국가 원수로 하는 민간정부를 발족시켰으나, 정치와 사회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5. 연합국 전투부대 파월派越

〈표1〉 주월 미군의 연도별 병력수준

연도(年度)	병력수
1965년	184,300명
1966년	385,300명
1967년	486,600명
1968년	536,000명
1969년	537,500명
1970년	487,500명
1971년	387,500명
1972년	287,500명

1964 말경 남월 정부군은 자주국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는 수없이 남월 정부 측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에게 전투부대 파월을 요청했다. 1965년 2월

〈표2〉 미국의 월남전 전비戰費 (단위:US\$)

연도	전비	직접전비	간접전비	합계
FY 1965		1억	1억	2억
FY 1966		58억	60억	118억
FY 1967		201억	180억	381억
FY 1968		265억	230억	495억
FY 1969		288억	220억	508억
FY 1970		230.5억	170억	400.5억
FY 1971		153억	120억	273억
FY 1972		120억	100억	220억
합계		1,316.5억	1,081억	2,397.5억

3일 미국정부는 미군전투부대를 파월하여 월남전에 참전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월남전 연도별 병력 수준과 전비戰費는 〈표1, 2〉와 같다.

월남전에서 미군 전사자 수는 56,096명이고 부상자는 30만여 명이다. 투하 폭탄은 455만 톤이며 이는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투하한 63만 톤의 7배가 되었다. 월남전에 미군 외에 한국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태국군, 필리핀군 전투부대들이 파견되었다. 한국군 전투부대는 제1진이 1965년 10월8일에 월남에 상륙하고 마지막 진이 1966년 10월에 상륙함으로써 보병 2개 사단, 해병 1개 여단과 지원부대까지 합하여 4만5천명의 주월 병력 수준을 정전시 까지 유지하였다.

6. 남월 민선 제2공화국 출범

1967년 9월3일 월남공화국(남월)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응우옌반티우(阮文紹)는 165만표를 얻어 당선되고, 2위 쑹딘쥬(張廷裕)는 81만여표를 얻는 놀라운 득표력을 보였다. 쑹딘쥬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하며 유권자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즉 “우리 월남 민족은 동족상쟁의 전쟁을 하고 있으며 외세마져 끌어들여 우리 동족의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피는 흘러 내(川)를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슬프시겠는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북폭北爆을 즉각 중지시키고, 북월 측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 나를 찍어 달라”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용공 친북인사로 의심하고 있었으나,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민족주의자이고, 평화주의자이며, 민주주의 신봉자이고, 진실한 불교도이니 믿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쑹딘쥬는 거물 중에 거물급인 북월의 공산당 프락치였으며, 남월 패망 후에 피난민 신분으로 가장하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고위층과 교제하면서 극비정보를 수집하여, 하노이에 있는 월남공산당 서기장 레준에게 보고를 계속하다가 1978년 미국 FBI에 의해 공산간첩죄로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서, 그와 가까이 지내던 상원 맨스필드 의원, 폴브라이트 의원, 맥거번 의원 등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1967년 10월30일 민선 대통령 티우는 취임식을 갖고 월남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남월에 연합군 전투부대가 파월되자, 공산군은 패전을 계속하여 위축되고 있었다. 연합군의 승리는 〈표3〉에 표시한 바와 같다.

1967년10월 남월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총 당선자 137명 중 공산프락치 내지 친북 용공주의자로 의심되는 의원이

〈표3〉 남월 정부측과 공산측의 남월 인구통제(확보) 연도별 현황

연도	인구	남월총인구	남월정부통제인구	경합지역인구	공산군통제인구
1965	14,813,000명	8,506,000명 (57.4%)	2,950,000명 (19.9%)	3,357,000명 (22.7%)	
1966	16,694,000명	11,099,000명 (66.5%)	3,042,000명 (18.2%)	2,553,000명 (15.3%)	
1967	16,715,000명	12,335,000명 (73.9%)	2,223,000명 (13.3%)	2,173,000명 (12.8%)	
1968	17,452,000명	13,969,000명 (80.1%)	1,350,000명 (7.7%)	2,133,000명 (12.1%)	
1969	17,551,416명	16,368,282명 (92%)	699,512명 (3.9%)	483,622명 (2.7%)	
1970	17,873,400명	16,992,000명 (95.1%)	812,800명 (4.6%)	37,800명 (0.2%)	
1971	18,719,000명	18,117,000명 (96.8%)	576,300명 (3.1%)	7,000명 (0%)	
1972	19,701,000명	17,830,100명 (90.4%)	985,300명 (5%)	886,400명 (4.5%)	

(주) : 경합지역은 낮에는 남월정부군측이 통제관리하고 밤에는 공산군측이 게릴라 무력武力 지배하는 지역이다.

24명이나 있었다. 그러나 이미 거덜 난 무능화된 남월정보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24명은 하원의원의 18%로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쑹딘주가 득표한 17.3%와 거의 일치한다.

7. 공산군의 구정舊正 공세와 미국의 정책 변화

월남인들은 구정을 대대적인 축제일로 삼는다. 그래서 구정이 되면 해마다 북월 공산군과 연합국 측은 3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축제분위기에 깊이 빠져 모두 즐기며 휴식을 취했다. 1968년 구정 3일간도 휴전에 합의하고 폭 쉬며 지내게 했다. 휴전 중인 구정 새벽에 공산군 특공대들은 사이공 시내의 독립궁, 방송국, 미국대사관, 기타 주요 건물들을 일제히 공격하고 1개 소대의 특공대는 미국대사관을 순식간에 점령했다. 이 구정 공세는 사이공 뿐만 아니라 남월 전 도시, 마을에 걸쳐 감행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연합군의 대대적인 반격에 의하여 공산군은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고 크게 패전하고 말았다. 소위 베트남의 군대는 총병력 14만 명중에서 약 7만 명이 전사, 또는 행방불명되어 재기가 불가능해서 북월 공산군 7만 명을 빌려다가 겨우 재편성을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공산군은 전술적으로는 대패했으나, 정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승을 거두었다. 바로 이것이 공산 측에 큰 도움이 되었다. 즉, 구정공세는 매스컴을 타고 연일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특히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군이 남월에 파견된 지 3년이나 되고, 49만 명의 미군이 전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공 중심가에 있는 대사관이 점령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니, 월남전에서 완전 승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회의를 강하게 품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년에 쑹딘주가 주장한 월남 남북화해평화협상에 관해 깊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쑹딘주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실패했으나, 수완이 뛰어난 이 비밀 공산주의자는 정체를 철저히 숨겨 위장하고 미국 상원의원 중

진들과 교우관계를 넓히고 있었다. 이 미국 의원들은 미국이 월남에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평화협상 제의를 수용해서 공산 측과 협상에 들어가라고 존슨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었다.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여러 대학에서 월남전을 반대하는 주월 미군 철수를 외치며 반전 데모를 했다. 일부 종교계에서도 반전운동을 격렬하게 했다.

1968년 5월10일 드디어 미국 정부는 북월을 상대로 파리에서 월남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회담을 시작했다. 회담 참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티우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 상원의원들과 연대하고 있는 쑹딘주는 티우를 비난하면서 이념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보수와 진보의 남남 갈등은 점점 불붙고 있었다.

8. 파리평화협정 체결

파리평화회담을 반대하며 회담 참가를 거부하고 있던 티우 대통령은 버티는데 힘의 한계를 느끼고 1969년 1월 대표단을 파리에 보내 평화회담 테이블에 앉게 하였다. 남월해방민족전선(후에 남월임시혁명정부) 대표단도 새로 참가하여, 종전의 미-북월 2자 회담은 미-북월-남월-남월민족해방전선 4자 회담으로 확대되었다. 4년8개월을 서로 밀고 당기며 지루하게 끌던 파리회담은 1973년 1월 27일 평화협정에 합의하고 서명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은 확실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평화감시위원단을 파견하는 캐나다, 이란, 헝가리, 폴란드 4개국 외무장관을 서명에 참석시켰다. 한편 북월 공산군 150명이 연락단으로 감시위원단에 파견되어 감시기능에 참여케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인질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믿지 못한 키신저는 영국, 소련, 프랑스, 중공의 4개국 외무장관까지 초청해서 서명에 참여시켰으니, 파리평화협정은 4+4+4, 12개국이 담보하고 보증한 튼튼하고 값비싼 국제서명문서였다. 키신저는 북월

공산 측이 평화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1. 북월 공산측이 협정을 위반하고 남월에 대한 총공세를 감행할 때에는 미국 해, 공군이 즉각 자동 개입하여 북폭을 강행하고 남월군을 공중지원하는 방위공약을 남월과 맺었다.
2. 북월이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40억달러(미국이 20억달러 무상 원조, 세계은행이 20억달러 장기저리차관)의전후 복구 및 경제개발 원조를 북월에 제공하기로 했다.
3. 주월미군 철수 때 첨단 무기들을 남월군에 이양, 남월은 총병력 125만명을 유지케하고, 북월공산군은 111만명으로 정했다.(남월군은 세계 4위 수준)



구정공세에서 미 대사관에 진입하는 월맹군 탱크

4. 국제평화감시위원단 250명의 본부를 사이공에 두고, 하노이에 지부를 설치하고 남, 북주요 도시에 여러 개의 감시조를 두었다.
5. 사이공에 체류하는 북월 공산군 150명의 연락단은 사이공에 체류케 하였다.

9. 남월의 부정부패와 군중 시위

티우 대통령은 초기 3년간 부정부패 일소를 노력했으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월남의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서서히 번지더니, 군중의 데모가 점차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부정부패 일소는 용두사미로 흘러가고 있었다. 사이공의 반정부단체로는 월남 인민전선, 전순종교 시민전선, 신국민운동, 민주평화쟁취위원회, 반독재투쟁조정위원회, 국가진보세력 등 좌익단체들이 각 대학과 여러 이익단체들과 연대하여 주로 학생, 승려들을 앞세워 티우 정권 타도와 반미 구호를 외치며, 촛불시위를 포함한 가두시위를 감행했다. 1971년 9월에는 사이공 대학생들이 선두에 서서 미국대사관에 수천 명이 진입하고, 수만 명의 군중이 대사관을 포위하고, “병커대사는 물러가라, 주월미군은 철수하라, 양키고 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차량 3대에 불을 질러 소각하기도 했다. 이 데모의 배후에는 남월의 최고 고승高僧인 짜팡(釋智光)과 큐몽트의원(북월 공산당 비밀 여성당원), 기타 비밀 북월 공산당 간부들이 있었다. 월남 통일 후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짜팡스님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으며 공산당원은 아니었다. 휘하에 모르고 비밀 공산당원들을 열렬한 민족주의자이고 불교도로 잘못 알아 거느리고 있었다. 통일 후에 공산당원의 실체를 모르고 도와준 비공산주의자들을 비정하게 모조리 체포해서 투옥시켰다. 짜팡스님도 체포되어 형무소에서 옥사獄死했다.

디엠 정권때는 유능한 정보 실력자들이 많아서 남월 내의 공산프락치는 거의 뿌리가 뽑혔으나, 그 후 반정부 시위와 연이은 쿠데타로 핵심 정보요원들이 모두 퇴직하여 정보기능을 거의 상실하자 북월 공산세력들이 남월 각계 각층에 침투해 들어왔다. 쯩딘쥬를 비롯 불교계, 정치계, 군, 대학 요소요소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티우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까지 비밀 공산 간첩들이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남월정보기관은 눈뜬 장님 상태에 있었다.

10. 북월의 재남침과 적화통일

1973년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자 남월 국민들은 앞으로 남북전쟁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남북통일은 남북의 합의 및 국제평화감시위원단의 통제, 감시 아래 남북자유총선거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만일 북월이 협정을 위반하고 다시 남침을 감행한다면 강력한 국제적 제재는 물론 특히 미국과 남월이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미 공군과 해군의 대규모 폭격기들이 즉각 북쪽을 감행하여, 하노이를 위시하여 주요 도시들을 불바다로 만들어 남월군을 지원할 것이며, 또한 북월은 세계 최극빈국 중의 하나로 미국이 제공해 주겠다는 40억 달러의 원조가 꼭 필요하여 협정의 이행이 당연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1974년 10월에는 남월에 매장량 200억톤으로 판단되는 유전이 발견되어 경제발전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며, 통일 월남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된다는 희망을 갖게 되어 국가안보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경제개발에만 주력하기로 했다. 남월은 경제개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유학생을 보내며, 현역 군인들도 대학 유학을 허용함으로써 부정부패와 군 기문란, 전투력 약화를 불러왔다. 심지어 티우 대통령의 사위도 대학생으로 있다가 군에 입대하여 유학을 떠났다. 남월의 군에 비리가 만연되면서, 뇌물로 장기 휴가를 가서 귀가하여 민간인 복장으로 회사에 출퇴근하는 군인까지 생겼다. 이런 군인을 ‘꽃 군인’, ‘유령군인’으로 호칭했다. 이런 군인들이 현역 58만 명중 약 10만 명에 달했다. 사회는 더 부패했다. 오래 내려온 4대 악이 더 기승을 부렸다. 남월의 이런 실정을 파악한 북월은 1975년 3월 남침 총공세를 감행했다. 남월의 ‘꽃군인’과 ‘유령군인’들은 미국이 즉각 참전하여 북월군을 퇴각시킬 것으로 믿고 복귀하지 않았으며 사기가 떨어진 전투부대

들은 추풍낙엽처럼 패전하면서 후퇴를 거듭했다. 미국은 밀 빠진 독에 물을 더 붓지 않고 남월과 맺은 상호방위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했다. 1975년 4월 30일 북월군은 사이공 독립궁을 점령하고 남월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 이로써 남월(베트남공화국)은 패망하여 드디어 소멸되고 말았다. 월남은 공산화 통일이 되고만 것이다.

11. 적화통일 후 남월 내의 인권 말살 12년 세월

남월 패망 13일전 캄보디아 내의 반정부 공산군은 무력으로 우익 보수정권을 쓰러 트리고 적화통일했다. 캄보디아 공산정권은 불과 수일 만에 전 영토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약 700만 명에 이르는 인구 중 약 200만 명의 우익보



월남전 패망 때 주월 미국대사관 옥상에서 헬기로 탈출하는 장면

수 인사들과 그 가족들을 학살했다.(소위 킬링필드) 이에 놀란 유엔 사무총장은 북월에게 긴급 전문을 보내, 캄보디아 공산당같이 남월인들을 대량 학살한다면 유엔 가입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에 따라 북월은 1975년 5월 1일 “이제부터 남월 내에서 인민학살을 일체 금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대신 가이따우(人間改造)를 시킨다는 구실 하에 남월의 군인, 공무원, 정당인, 종교인들과 가족들을 체포하여 투옥시켰다. 형무

소가 부족하여 남월군 막사, 공공시설들이 임시 형무소로 변하기도 했다. 또한 공산당원이 아니면서 반정부 데모를 한 자는 공산정권에도 데모를 할 것이라며 모두 투옥시켰다. 형무소의 급식은 보통의 4분의 1로 줄여서 굶어 죽는 수감자가 많았으며, 가장家長이 잡혀간 가족들은 생활난에 시달려 수없이 죽어갔다. 그래서 남월인들은 나무로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남월인들을 모두 석방시켰다. 이때부터 베트남은 개혁신을 하여 서방 민주주의 정책을 많이 채택하면서 대변신을 이루었다.

한편 남월 임시혁명정부(베트콩)는 북월 정치국 지시에 따라 1975년 11월15일 사이공 시내의 렉스(Rex)호텔에서 최후의 만찬회를 가진 후, 쥐도 새도 모르게 해체되어 사

멸했다. 이 날부터 남북통일을 정식으로 내외에 선언하는 1976년 6월24일까지 7개월간 남월 임시혁명정부(베트콩)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계속 남월을 통치하고 있는 양 위장하고 있었다. 그 후 베트콩 출신으로 월남 통일정부 공무원에 남아있는 자들은 부단히 숙청되고 있었으며, 1979년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의 11일간에 걸쳐 결정적인 숙청이 이루어졌다. 이 때 약 70%의 베트콩이 대규모로 숙청되어 하루아침에 알려지 신세가 되면서 쫓겨 나갔다. 공산통일을 한 캄보디아와 월남 공산당이 감행한 국민 대학살과 인권유린 대참극의 계획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공산독재 세습정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계 최선진국이 정보수집해서 1급 비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

인사人士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 정보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2000년6월13일 김정일은 조선공산당 극비밀 당원이며, 남한에서 민족주의자 및 민주주의자로 가장하고 유명한 정치가로 활동하고 있던 김모(金某)를 비밀 장소에서 만나, 한반도 적화통일 직후, 남한인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계획을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남한의 사대주의자(친미파), 친일파, 부정부패자, 정리의 명분名分으로 반역자, 반동분자 약 100만명을 즉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리고 약 700만명은 형무소에 잡아 넣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800만 명 내지 1,000만 명은 해외로 도망갈 것이다. 그래도 한반도에 남아있게 될 총 인구 수는 5,000만 명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어설픈 배를 타고 야간에 바다로 나갔다. 이런 보트피플은 패망 후 약 12년간 106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중 95만 명은 외국 선박에 구조되어 해외 망명 생활에 성공했으나, 약 11만 명은 남지나해에서 처참하게 빠져 죽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후 변했다. 1986년 10월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월 소련대사에게 지령을 내려 월남에서도 대대적인 개방정책을 펴도록 하였다. 월남 제6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 젊은 개혁파 인사가 당선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레준 서기장 등 70세 이상의 고령 간부들을 낙선시키고, 젊은 지도자 웬반린이 서기장에 오르고, 그는 고르바초프의 지원아래 ‘도이모이(刷新)’ 정책을 채택하여, 베트남 헌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그때까지

즉, 한반도가 적화통일이 되면, 비밀공산당원이 아니었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 군인 장병을 지낸 사람들, 국가공무원을 지낸 사람들, 기업체 간부를 지낸 사람들, 정당 간부를 지낸 사람들은 모조리 체포되어 즉각 사살되던가, 아니면 인권말살 지옥인 공산 감옥에 투옥되던가 하게 된다는 것이, 캄보디아와 월남과 닮은 꼴인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공산독재정권의 만고 불변의 철칙 계획이다.

12. 남월 패망의 교훈

민주 선진국들의 저명한 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이성(理性)의 민주주의와 충동(衝動)의 민주주의’가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이 두가지 민주주의를 마음에 간직하고 냉철하게 상황 판단을 하며 올바른 길을 이행할 때 나라는 강국이 되며 무궁히 발전한다. 남월의 디엠대통령이 통치할 때의 초기 6년간은 대통령이 도덕적, 논리적, 실천적인 깨끗한 이성을 가지고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했고, 국민들도 이성을 가지고 이를 지지했기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자유를 누렸고, 국가안보의 국방력은 막강했었다. 그러나 집권 7년차부터 장기 집권의 폐단이 일어나자 충동의 민주주의 극단인 민중봉기와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디엠은 사살되고 정권은 쓰러졌다. 군사임시정권이 정권을 장악하자 군 수뇌부 장군들은 국가이익보다는 개인이익에 치중하면서 사분오열이 되어 쿠데타가 연속되며, 뇌물, 도박, 아편, 매춘의 고질적인 4대악이 되살아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되며, 반정부 데모가 설새 없이 일어나서 국력은 분열되며 약화되었다. 미국은 밀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지 않는다. 파리평화협정을 위반하고 북월이 남침 총공세를 감행할 때 미국은 남월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남월의 패망을 방관만 했다. 공산 측과 체결한 협정은 이쪽

의 군사력이 절대로 강력할 때만 유효하다. 북월은 세계 4대 강국을 포함한 12개국 서명한 협정을 하루 아침에 헌신짝같이 버리고 전투력이 형편없이 약화된 남월에 대해 총공세를 강행하여 남북통일을 달성했다. 남월 패망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원리적인 통일적인 이성을 상실하고, 민중의 감정을 들쭉시는 민주주의 극약인 충동의 반정부 시위에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력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이것



1975년 월남이 패망하자, 바다로 탈출하여 타국적 배로 옮겨타는 월남 난민들 (보트 피플이란 신조어가 생겨남)

이 역사의 큰 교훈이었다. 이로 인해 남월 국민들이 1975년 5월부터 12년간 인권 말살의 지옥생활인 최대 비극의 고통기를 맞게된 것이었다.

13. 북월이 겪은 대미對美항복 위기를 넘긴 회고담

다음은 2013년에 102세로 세상을 떠난 보웬잡 전 북월 국방장관이 당시의 대미항복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비화(秘話)를 훗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다. 즉, “우리는 미국이 왜 하노이를 더 공중 폭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때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폭격을 그만 두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미국이 하루 이틀만 더 폭격을 했더라도 우리는 항복했을 것이다. 구정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

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패배했었는데..... 우리는 미군이 승리했음을 아는 줄 알았다. 결국은 미국 언론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다. 우리가 전장에서 싸운 것보다 미국 언론이 미국내에서 분열을 더 많이 일으켰다. 미국은 월남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 진 것이다.”라고 회고했다.

14. 결론

우리 국민성은 국가이익을 위해 뭉치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짧은 기간에, 즉 영국이 200년, 미국이 180년, 일본이 100년 걸려 달성한 산업화 과정을 불과 30년만에 달성한 위대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국가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 사리사욕으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면 나라가 멸망한 비극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 즉, 능력은 우수하지만 극단에서 극단으로 변하는 장단점을 모두 가진 국민성을 보이고 있다.

동서고금 역사상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일란성 쌍둥이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은 월남 패망의 직전과 비슷한 상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성 민주주의는 자취를 감추고, 극단적인 반정부 군중 촛불 시위들이 자주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총동 민주주의에 의해 정치 대혼란을 겪고, 참다가 드디어 태극기 시

위도 일어나서 국론은 사분오열로 갈라지고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는 사상 초유의 국가 비극을 겪고 있는 중이다. 우리 국민들은 냉철한 이성을 회복하여 깊이 깨닫고 국민 통합의 큰 길을 모색하며 사리사욕을 과감하게 버리고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국민 통합의 대도(大道)를 당당히 걸어 나가는 전화위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를 시급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총동의 민주주의인 군중 데모는 최소화하고, 이성의 민주주의를 우선 시키며, 우리 국민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1. 진실한가. 2.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 3. 이성을 따르고 있는가. 4. 국민 모두에 유익하며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가. 5. 개인이익을 뒤로 하고 국가 혼란기를 치유하는 국가이익을 선행시키고 있는가.”이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며, 정확한 북한 핵무기 정보를 수집하면서 미국과의 협조하에 절대적으로 우세한 보복 능력을 우리 측이 가지고 있을 때 북한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는 5월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 절대로 친북냄새가 나는 후보자들은 낙선시키는 길이 월남 패망의 전철(前轍)을 피하는 안전한 길이다. 국민들이 이를 명심해야 한다. 하늘은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국민을 도와준다. **길재**

필자약력



티우 대통령과 면담하는 이대용 공사

1925년 황해도 금천에서 태어났다. 1948년 육군사관학교를 제7기로 졸업하고 6.25 당시 국군 중위로 참전했다. 국가 멸망의 위기 속에서 춘천전투, 낙동강교두보의 영천 신녕전선 사수, 압록강 진격 등 거의 모든 중요한 전투에서 직접 장병들을 지휘했다. 1973-1975년 주월 한국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했다. 남베트남이 멸망할 때, 대한민국으로 철수하는 동포들을 끝까지 지키다 억류, 5년여 기간 동안 불법체포되어 치화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80년 귀국하였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거쳐 현재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압록강에서 대동강까지', '압록강 푸른물', '통곡하는 승리자', '사이공 억류기', '국경선에 밤이 오다', '김정일과의 악연 1809일' 등이 있다.